중앙선 넘어 추월·신호위반·급정거 여전

준공영제 무색한 광주시내버스

불친절·난폭운전 민원 잇따라

#폭우가 쏟아진 13일 오전 11시께 김모(30·광주시 서구 광천동)씨는 무등경기장에서 호남대 방향으로 향하는 시내버스를 탔다. 김씨를 태운 버스는 무진로 입구에서 속력을 내더니 4차선에서 2차선 맨 앞으로 끼어들었다. 또 DJ센터 앞도로에서는 시속 70km(제한속도 60km)로 속력을 높였다. 승객이 앉지도 않았는데 출발하기도 하고, 빗속을 질주하며 가다 서다를 반복하는 곡예 운전도 여전했다.

#천모(41·광주시 남구 방림동)씨도 이날 오후 1시50분께 북구청에서 광주대로 가는 시내버스를 탔다가 위험천만한 상황을 경험했다. 광주시 북구 광주역 앞 무등로에서 밀려드는 차량에 급정거하면서 승객들이 앞쪽 방향으로 갑작스럽게 쏠렸고 천씨도 밀려나가면서 손을 놓쳐 넘어질뻔 했다.

300억원의 시민 혈세가 투입되는 광주 시내버스의 과속·난폭 운전이 여전하다는 지적이다. 특히 시내버스 준공영제 이후 운전자의 교통의식 개선으로 나아질 것으로 기대했지만 여전히 고쳐지지 않고 있다.

13일 광주시에 따르면 올들어 승차거부와 불친절, 난폭운전 등 시내버스 관련 민원은 270건이었다. 심각한 경우가 아니면 대부분 시민들이 민원을 제기하지 않는 것을 감안하면 적지 않은 수치다.

광주시 홈페이지에 올라오는 시내버스 관련 민원도 적지 않다.

한 시민은 광주시 홈페이지를 통해 "중앙선 넘어 추월하기는 기본 신호위반까지, 그러니 급정차가 많아 승객들이 많이 놀라지 않습니까. 이런 걸 볼 때 누가 저런 버스에 타고 싶을까 하는 생각이 하루에도 여러 번이다. 버스는 승객안전이 최우선 아닙니까"라고 불만을 터트렸다.

그러나 잇따르는 민원에도 관계당국의 조치는 신통치 않다.

시내버스의 과속·난폭운전에 대한 광주시의 조치는 특별교육과 경고에 불과하다. 재차 적발되거나 민원사항이 심각할 때만 자체조사를 거쳐 경찰에 이첩하는 수준이다. 광주시는 올해 5건을 경찰에 이첩했다.

버스를 자주 이용한다는 윤모(29·광주시 동구 운림동)씨는 "직접 겪었던 버스의 난폭운전은 마치 경주시합에 출전하는 차량같았다"며 "대중교통인 시내버스가 안전 준칙을 어기고 교통위반하는 경우에 대해서는 강력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버스 운전기사들은 주요 도로의 불법 주정차, 교통 지·정체로 인한 배차시간 압박, 버스전용차로 부족 등 근본적인 대책이 절실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10여 년 동안 버스운전을 하고 있다는 김모(54)씨는 "운전대를 잡을 때마다 안전운전을 다짐하지만 막상 도로 상황을 접해보면 정상적인 운전은 도저히 불가능하다"며 "대중교통 중심의 도로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이 먼저"라고 말했다.

/김대성기자 bigkim@kwangju.co.kr
/김경인기자 kki@kwangju.co.kr

13일 오후 광주시 서구 광천동 사거리에서 한 시내버스(왼쪽)가 우회전 차선을 막은 채 직진신호를 기다리고 있다.
/최현배기자 choi@kwangju.co.kr

"앗! 내 눈이…"

구례군청 공무원 근무중 사고 실명위기

구례군청 공무원이 근무 중 사고로 실명위기에 놓였다.

13일 구례군에 따르면 구례군 환경관리사업소에서 상수도 유지보수 업무를 담당하는 한상문(35) 주무관이 지난 9일 마산면 냉천마을에서 마을 급수관 점검하던 중 사고로 드라이버에 왼쪽 눈을 찔려 실명 가능성이 높아 주위를 안타깝게 하고 있다.

당시 한 주무관은 급수관의 수압이 낮은 원인을 찾기위해 급수관 시점부에 설치된 유량계실 안으로 들어가 감압밸브 점검을 마치고 나오면서 유량계실의 맨홀 뚜껑을 덮다가 뚜껑을 괴어놓은 드라이버가 안면쪽으로 튀어오르면서 변을 당했다.

한 주무관은 안구자상 및 시신경손상 등 중상을 입은 것으로 알려졌다.

구례군청 공무원들은 "항상 일찍 출근하고 업무에도 솔선수범하는 성실한 공무원"이라며 한 주무관 돕기에 나섰다.

/동부취재본부=이진택기자 lk5826@

기상관측선 선급금 37억 용처 추적

檢, 고려조선·중공업 간부 소환

고려조선 경영진의 횡령 · 로비의혹을 수사중인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심재돈 부장검사)는 13일 오후 고려조선 전모 관리상무와 고려중공업 전모 관리부장을 참고인 신분으로 소환 조사중이다.

전 상무와 전 부장은 각각 이들 두 회사의 자금관리를 담당한 인물이다. 검찰은 이들을 상대로 회사의 전반적인 자금 관리 현황을 조사중이다.

검찰은 고려조선이 기상청과 해양기상관측선 '기상1호' 납품 계약을 맺고 받은 선급금 37억원을 원래 용처에 썼는지, 하청업체와 납품계약 후 대금을 부풀려 지급한 뒤 되돌려받은 돈은 없는지 조사한 것으로 전해졌다.

또 회사 측이 고려조선 대표이사 전모씨에게 명목상 근거 없는 자금을 지급한 것은 없는지 추궁한 것으로 알려졌다. 고려중공업에 대해서는 전남 진도의 조선소 부지를 매입한 과정 및 그곳에서 나온 골재 채취 · 판매 과정을 상세히 조사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대표 전씨가 토지매입비를 과다계상하거나 골재 판매대금 일부를 빼돌려 비자금을 조성했을 가능성이 큰 것으로 보고 있다. 고려중공업은 전씨가 진도에 조선소를 세우려고 만든 회사로 진도군 민자 유치 1호 기업이다.

진도군 68만여㎡(약 21만평) 부지에 사업비 2100억원을 투입, 2007년부터 중대형 선박 건조를 위해 조선소를 건설하기 시작했으나 경기침체 및 조선업 불황으로 자금 사정이 악화해 공사가 중지된 상태다. /연합뉴스

나원참 〈8630〉 김종두

"2만원 갚아라" 항의에 흉기

광주남부경찰은 13일 2만원을 갚으라는 지인에게 흉기를 휘두른 김모(61)씨를 상해 혐의로 붙잡아 조사중이다.

경찰에 따르면 김씨는 지난달 24일 낮 12시30분께 광주시 남구 서동 자신의 집에서 나모(80)씨에게 흉기를 휘둘러 목 부위에 전치 3주의 상해를 입힌 혐의를 받고 있다.

/김경인기자 kki@kwangju.co.kr

광주출입국사무소 직원이 '비자장사'

여행사서 돈 받고 中교포에 부정발급·입국 허가

광주출입국관리사무소 직원이 여행사 브로커의 뇌물을 받고 중국교포들의 비자 부정 발급과 입국허가심사시 편의를 제공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이 같은 비자 부정발급 및 허술한 입국허가심사 등이 광범위하게 이뤄졌을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보고 있다.

광주지방경찰청 외사계는 13일 여행사 브로커들로부터 5000여만원의 뇌물을 받은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 위반)로 광주출입국관리사무소 직원 조모(44)씨를, D여행사로부터 5200만원을 받은 뒤 조씨에게 1020만원을 전달한 혐의(뇌물공여 등)로 김모(46)씨를 각각 구속했다.

경찰은 애초 지난 6월 중국교포 상대 비자발급 알선조직 16명을 적발하면서 조씨를 불구속 입건했으나 추가 혐의가 드러나면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조씨는 2곳의 여행사에 고용된 3명의 브로커로부터 뇌물을 챙겼다.

경찰에 따르면 조씨는 지난 2010년 6월부터 지난해 말까지 여행사와 연계된 비자 브로커들로부터 수십차례에 걸쳐 뇌물을 받고 출입국정보관리업무시스템에 저장돼 있는 외국인의 개인정보 및 편의를 제공한 혐의다. 또 조씨는 외국인 입국심사 과정에서 브로커가 소개한 외국인에게 편의를 제공한 혐의도 받고 있다.

경찰은 실제 브로커를 통해 불법체류 신분으로 추방당한 뒤 이름을 바꾼 중국교포 등이 입국심사를 통과한 것으로 보고 있다.

경찰조사 결과 여행사들은 1인당 5만~7만원의 수수료를 아끼기 위해 입국허가 서류를 접수하기 전 심사통과 가능 여부 등 관련 정보를 조씨로부터 전달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 관계자는 "여행사 등이 비자발급이나 입국심사에서 편의를 받기 위해 출입국관리사무소에 줄을 대려하는 고질적인 병폐가 있다"고 지적했다.

/임동률기자 exian@kwangju.co.kr

국립현대미술관 공사장 불 4명 사망

지하 3층서 발화

13일 오전 11시20분께 서울 종로구 소격동 경복궁 옆 국립현대미술관 서울관 공사현장 지하 3층에서 불이 나 현장 내부를 태우고 1시간20여분 만에 진화됐다.

이 불로 지하 3층 근무자 4명이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숨졌고, 18명이 연기를 들이마셔 인근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다. 타워크레인 작업자 한 명도 지상으로 대피하던 중 20여m 아래로 추락해 병원으로 후송됐으나 중태다.

소방당국 관계자는 "지하 3층에서 우레탄으로 방수 · 단열작업을 하다 화재가 발생한 것으로 추정된다"며 "불이 난 현장은 페인트와 우레탄, 가스 등 인화성 물질을 많이 쓰는 곳이었다"고 말했다.

소방당국은 현장에 소방대원 160여명과 차량 30대를 투입, 진화에 나섰으나 현장 면적이 넓고 유독가스가 심해 작업에 어려움을 겪었다.

매캐한 연기는 정부중앙청사에서도 맡아질 정도로 세종로 등 시내 중심가에 퍼졌다. 서울시내 중심가인 화재 현장에서 연기가 많이 피어오르면서 경찰과 소방당국에는 화재를 목격한 시민의 신고가 빗발쳤다./연합뉴스

경찰이 도움 요청 여대생 성추행

쌍나팔

○…경찰 간부가 심야에 자신에게 도움을 요청하는 여대생에게 성희롱성 발언과 함께 성추행까지 저지른 것으로 드러나 물의.

○…13일 전남경찰청에 따르면 구례경찰서 생활안전교통과 소속 A(58) 경위가 지난 7일 오후 10시께 관용차 내에서 B(여·23)씨에게 "남자친구랑 뽀뽀는 했느냐. 성관계는 몇번이나 해봤느냐" 등의 발언을 하며 B씨의 배를 만졌다는 것.

○…전남경찰청 관계자는 "7일 광주에서 구례를 방문했던 B씨가 길에서 만난 A 경위에게 숙소를 안내해달라고 하자, 이동 과정에서 부적절한 언행을 한 것 같다"며 "A 경위를 대기발령조치했으며 징계위에 회부할 방침"이라고 설명.

/김경인기자 kki@kwangju.co.kr

즉석 프리미엄 뷔페
아이엘리시아
특허청 서비스표등록 제41-0187289호
주류서비스
-성인1인당, 평일방문 고객께-
맥주 or 소주 1병
와인 or 생맥주 1잔 택1
150여가지의 즉석메뉴(샐러드, 양식, 일식, 중식, 한식)를
온 가족이 마음껏 취향에 따라 드실수 있는 즉석 프리미엄뷔페!!

가격안내
(이용시간: 11:30~22:00)
●평 일
성인(중학생이상) 25,000원
●토 · 일 · 공휴일
성인(중학생이상) 29,000원
각종 모임 및 행사예약 (150석, 92석, 52석, 32석, 24석, 12석)
● 돌잔치, 피로연, 회갑연, 칠순연, 세미나 | ● 출장뷔페, 도시락
예약문의 062)671-1199 | 광주종합버스터미널 2층
24시 유·스퀘어사우나
각종 편의시설 수면실(침대) · 인터넷 · 안마기 · 세신 · 세화
유 · 스퀘어 2층 아이엘리시아 옆 문의전화 062) 352-4455 | 터미널 주차장 2시간 무료

대한방과후교육협회 발기인 대회 및 사업설명회

안녕하십니까!
사)대한방과후교육협회에서 지역 교육을 이끄시는 저명한 분들을 모시고 방과후 교육사업 설명회를 개최하고자 합니다.
현 교육의 현안에 대해 깊이 고민하고 또한 미래교육을 설계하고 비젼을 제시할 사업설명회에 참석하시어 고견 주시기를 기대합니다. 향후 전국 지부망을 통해 조직적인 활동으로 내실 있고 체계적인 방과후 교육을 선도하는 협회가 되겠습니다.
아울러 본 협회 회원, 분과장, 지부 모집을 진행하고 있으니 많은 참여 바랍니다.

(전 · 현직 교육계 저명인사 회장 및 고문, 이사, 자문위원참여)

일 정
■일 시 : 2012년 8월 16일(목) 14:00~16:00 (광주 · 전남 동시 실시)
■장 소 : 광주교육대학교 대강당
■문 의 : (사)대한방과후교육협회
☎ 062) 268-0978, 011-434-4837

비 전	회원 및 지부 모집대상
1.방과후학교 교사인증 자격증발급 2.방과후교사 양성과정 3.일자리 창출(고학력경력단절여성) 4.사회적 기업 지원 5.평생교육원운영지원 6.법인설립지원	1.교육계 종사하시고 계시는 분 2.교육에 관심이 깊으신 분 3.학원운영 경험이나, 현재 학원운영중이신 원장님 4.방과후 학교 프로그램 운영 하실분
회원가입 후 진로	**사 업 영 역**
초,중,고 방과후 교사, 창업지원, 문화센터, 복지관, 주민자치센터, 노인대학,각 대학평생교육원, 1:1홈스쿨, 지역아동센터강사, 각대학 평생교육원 방과후강사 등으로 취업	수련활동(적십자수련원, 정남진리조트),체험학습활동(공예체험, 수영등),수학여행, 학예발표회, 축제(음향, 조명, 무대풍선장식,레크리에이션강사,비디오촬영등)

사단법인 대한방과후교육협회